

2005년 임금동향과 2006년 임금전망

이시균·강승복*

I. 2005년 임금 동향

1. 임금상승률 상승세로 반전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2005년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404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4년 임금상승률의 6.0%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단위: 천원/월, 시간/주, %)

	2001	2002	2003	2004	2005
임금총액	1,752 (5.1)	1,948 (11.2)	2,127 (9.2)	2,255 (6.0)	2,404 (6.6)
정액급여	1,257 (6.3)	1,408 (12.1)	1,532 (8.8)	1,636 (6.8)	1,756 (7.4)
초과급여	131 (-1.6)	126 (-3.9)	135 (7.3)	137 (1.7)	149 (8.7)
특별급여	365 (3.4)	416 (13.4)	460 (11.4)	482 (4.6)	499 (3.5)
총근로시간	46.6 (-1.1)	46.0 (-1.4)	45.6 (-0.7)	45.4 (-0.5)	44.9 (-1.1)
정상근로시간	41.9 (0.4)	41.8 (-0.3)	41.6 (-0.5)	41.6 (-0.1)	40.9 (-1.7)
초과근로시간	4.7 (-12.8)	4.1 (-11.8)	4.1 (-2.2)	3.8 (-5.1)	4.1 (5.4)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이시균=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책임연구원(lsk@kli.re.kr).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연구원(kangsb@kli.re.kr).

[그림 1]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추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2,040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8% 상승하여 2004년의 2.3%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상승률의 상승세는 실질경제성장률 추세와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실질경제성장률은 2004년에 1.5%포인트 상승하였고 2005년에는 0.6%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실질임금상승률은 2002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05년에 상승세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2005년 임금상승률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 상승률은 7.4%로 나타났고 초과급여 상승률은 8.7%로 전년에 비해 각각 0.6%포인트, 7.0%포인트 상승하였다. 초과급여의 높은 상승률은 근로시간 단축대상 사업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정상근로시간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초과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특별급여는 전년에 비해 3.5% 상승하여 전년의 상승률 4.6%에 비해 1.1%포인트 낮은 상승세를 기록하였다(표 1 참조).

2. 도소매업 등에서 임금상승률 크게 상승

산업별 임금동향을 살펴보면 내수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면서 도매 및 소매업에서 큰 폭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건설업은 임금수준이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 통신업은 1%대의 낮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매 및 소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은 임금상승률이 상승하였다.

<표 2> 산업별 임금상승률 추이

	2003년 평균	2004년 평균	2005년 평균
전산업	2,127 (9.2)	2,255 (6.0)	2,404 (6.6)
제조업	2,018 (8.7)	2,209 (9.5)	2,388 (8.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689 (13.8)	3,838 (5.2)	4,101 (6.9)
건설업	2,072 (11.5)	2,130 (2.8)	2,123 (-0.3)
도매 및 소매업	2,089 (10.6)	2,175 (4.1)	2,408 (10.7)
숙박 및 음식점업	1,439 (5.4)	1,513 (5.1)	1,600 (5.8)
운수업	1,836 (11.1)	1,926 (4.9)	2,111 (9.6)
통신업	3,585 (3.6)	3,642 (1.6)	3,698 (1.6)
금융 및 보험업	3,310 (12.6)	3,539 (6.9)	3,748 (5.9)
부동산 및 임대업	1,350 (9.4)	1,387 (2.7)	1,520 (9.6)
사업서비스업	2,046 (5.2)	2,185 (6.8)	2,291 (4.9)
교육서비스업	2,560 (7.0)	2,696 (5.3)	2,724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53 (7.1)	2,059 (5.4)	2,259 (9.7)
오락문화운동서비스	2,574 (13.2)	2,690 (4.5)	2,724 (1.2)
기타서비스	1,861 (8.6)	1,932 (3.8)	2,010 (4.1)

주 :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 규모별 임금상승률 추이

	2003년 평균		2004년 평균		2005년 평균	
	지수	지수	지수	지수	지수	지수
전 규모	2,127 (9.2)	[137.9]	2,255 (6.0)	[137.4]	2,404 (6.6)	[134.8]
5 ~ 9인	1,543 (5.2)	[100.0]	1,642 (6.4)	[100.0]	1,783 (8.6)	[100.0]
10 ~ 29인	1,808 (6.1)	[117.2]	1,945 (7.6)	[118.5]	2,081 (7.0)	[116.7]
30 ~ 99인	2,005 (8.0)	[129.9]	2,124 (6.0)	[129.4]	2,259 (6.3)	[126.7]
100~299인	2,230 (7.9)	[144.5]	2,387 (7.1)	[145.4]	2,517 (5.4)	[141.1]
300~499인	2,474 (5.0)	[160.3]	2,683 (8.4)	[163.4]	2,822 (5.2)	[158.3]
500인 이상	3,043 (11.9)	[197.2]	3,327 (9.3)	[202.7]	3,541 (6.4)	[198.5]

주 :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안은 5~9인 규모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임금지수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3. 5~9인 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아 규모간 임금격차 축소

사업체 규모별 임금동향을 살펴보면 5~9인 규모 사업체에서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소득의 양극화가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5~9인 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8.6%를 기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0~499인

규모 사업체는 5.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5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도 6.4%로 비교적 낮은 임금상승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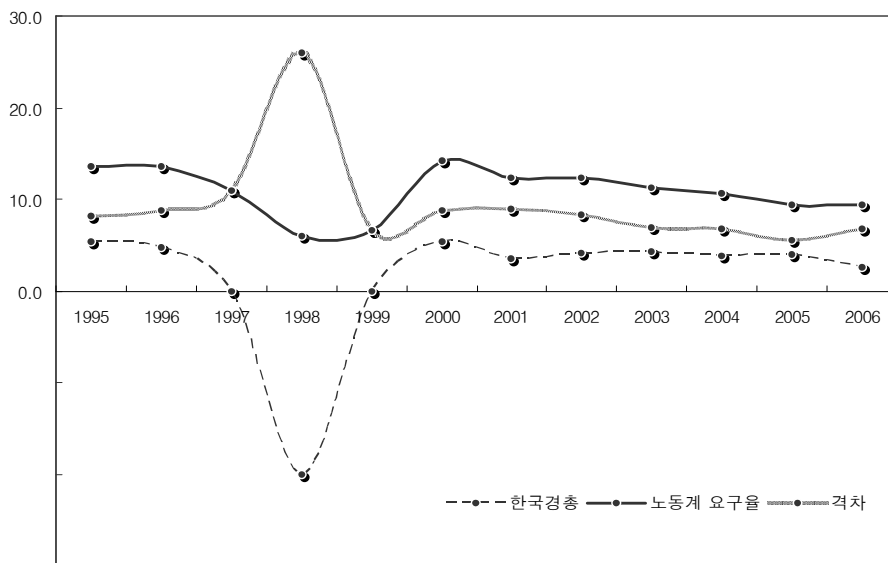
또한 5~9인 규모 사업체에서 임금상승률이 2.2%포인트 상승한 반면, 5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는 2.9%포인트 하락하여 5~9인 규모 사업체와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격차는 다소 축소되었다.

4. 경영계의 제시안과 노동계의 요구율 격차 다소 확대

2006년도 노동계 요구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제시한 반면, 경총의 제시율은 감소하여 노동계의 요구율과 경영계의 제시율간의 격차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정규직의 경우 9.6%, 비정규직은 19.2%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민주노총은 정규직의 경우 9.1%, 비정규직은 17.4%의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한국경총은 적정 임금인상률로 2.6% 인상을 제시하는 한편 대기업의 경우에는 임금 동결을 권고하였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요구율과 제시율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06년도에 들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계의 요구율은

[그림 2] 경총의 제시안과 노동계의 요구율 추이



- 주 : 1) 1999년 경총은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은 동결, 진행중인 기업은 임금삭감을 제시함.
- 2) 2004년 3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300인 미만 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함.
- 3) 2005년 1,0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1,000인 미만 기업은 3.9% 인상을 제시함.
- 4) 2005년도부터 노동계 요구율은 정규직 요구율을 기준으로 함.

자료 : 한국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발표자료, 각년도.

변화가 없었던 반면, 경영계의 제시율이 낮아진 결과이다.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전년도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하였고 민주노총은 오히려 0.2%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한국경총의 제시율은 1.3%포인트 감소하였다.

II. 2006년 적정임금인상률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적정임금인상률 6.2%

임금상승률의 적정성은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과의 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률의 준거지표로서 근로자측은 생계비, 기업측은 지불능력을 주로 강조하고 있지만, 소위 ‘생산성임금제’가 노사 모두에게 중립적이다.

생산성임금제란 임금상승률을 생산성 증가율과 연계시키는 임금인상 결정방식으로, 이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만큼 적정하게 보상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저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사 양측에 대해 합리성을 견지하고 있다.

이른바 ‘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란 개별 기업단위에서의 생산성임금제를 경제 전체에 대하여 확대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임금상승률을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일치시키면 임금인상에 의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여분 만큼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우선 완전경쟁시장 및 1차 동차 생산함수($y = AL^\alpha K^\beta$, $\alpha + \beta = 1$)를 가정하고 이윤극대화 조건을 정리하면 식 (1)이 도출된다.

$$\frac{W}{P} \equiv w = MP_L \equiv \alpha \frac{y}{L} \dots\dots\dots (1)$$

여기서 w 는 명목임금, P 는 물가(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내며 w 는 실질임금을 의미한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실질임금은 노동의 기여분, 즉 노동의 한계생산성 만큼 주어지기 때문에 $w = MP_L$ 의 등식이 성립하며,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산출량(실질GDP) y ,

노동투입량(근로자수) L ,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α 에 의해 정의된다.

식 (1)에 자연대수(log)를 취하고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노동소득분배율 α 는 일정하다고 가정), 식 (2)와 같은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다.

$$\dot{W} = \dot{y} + \dot{P} - \dot{L} \dots\dots\dots (2)$$

위의 관계를 국민경제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치를 식 (2)에 대입하면 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적정임금인상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 적정임금인상률 = 실질경제성장률(한국은행 5.0%)
- + 소비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 3.0%)
- 취업자증가율(한국노동연구원 1.8%)
- = 6.2%

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도출된 평균적 의미의 적정임금인상률이기 때문에 조건이 다른 모든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기업 임금교섭에서의 준거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에 입각한 적정임금인상률은 경제운용의 준거로 사용함에 있어 그 유용성이 클 뿐만 아니라 본래적 의미의 중립성으로 인해 노사 간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에 있어 매우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2006년 실제 임금상승률 전망

실제 임금상승률 전망은 7.0%

2006년 임금상승률을 전망하기 위해서 1980년 이후 과거 연도별 실적치(1980~2004년 자료)를 이용한 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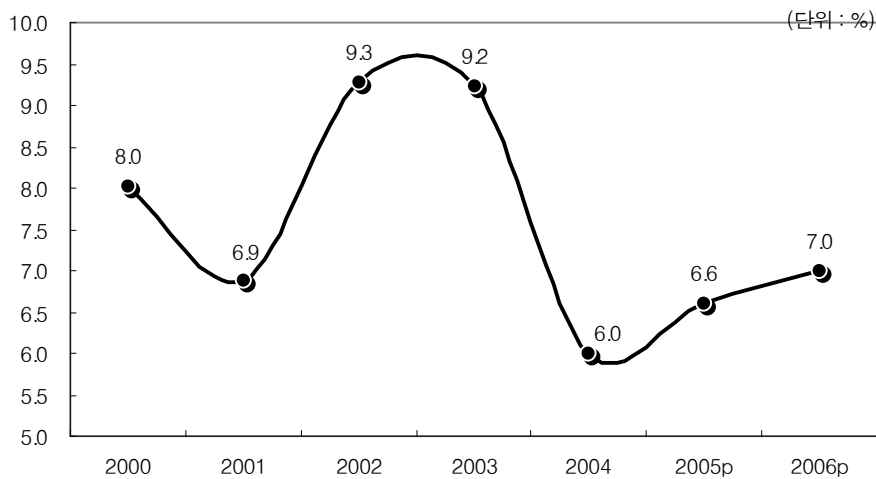
임금은 장기적으로 물가격차, 생산성, 실업률에 의존한다고 가정하고 설정한 임금상승률 전망 모형은 다음과 같다.

$$\Delta w = \gamma_0 + \Delta p_c + \gamma_1 \Delta(p_p - p_c) + \gamma_2 \Delta q - \gamma_3 \Delta u_{-1} - \gamma_4 [w - p_c - \alpha_1(p_c) - \alpha_2 q]_{-1} + \eta$$

여기서 Δ 는 변수의 차분연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Delta w, \Delta p_c, \Delta p_p$ 는 각각 명목임금증가율, 소비자물가증가율, 생산자물가증가율을 가리킨다. []안은 장기적 추세로부터의 격차를 나타내는 오차수정항이며 명목임금은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 p_c , 물가격차 $(p_p - p_c)$ 와 생산성 q 에만 의존하고 실업률 u 에는 의존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추정방법은 []안의 장기식을 OLS로 추정하여 계수값 α_1, α_2 를 얻은 뒤 이를 이용하여 동태식을 추정하여 $\gamma_0 \sim \gamma_4$ 를 구하는 2단계 추정방식을 사용한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2006년 임금상승률을 추정하면 내수회복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5년보다 0.5%포인트 내외로 높아진 연간 7.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KL**

[그림 4] 연도별 임금상승률 추이 및 전망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및 본원, 「임금상승률 추정모형」.